

프린지페스티벌 지역단체 참여 60%까지 확대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나서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등 8억 규모 지원 예술인 300명 작품 배너 제작 구도심 설치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을 계기로 박물관을 비롯한 공연장, 미술관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들이 시민들을 맞이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다소나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광주문화재단이 코로나 19로 위축됐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문화재단은 최근 현장 중심 행정, 예산 조기 집행, 예술배너 공공프로젝트 사업, 8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 지원사업 지침 완화 등 예술인 중심 행정 운영=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운영한다. 보조사업의 대기금·사례비 등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도 앞당겨 발주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범위도 확대한다.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지역 단체 참여를 60%까지 확대하고 트레일러 공연도 4회 늘린다.

지원단체의 무관객공연과 방송·유튜브 등 온라인 공연을 허용하고 야외공연장작업지원사업의 경우 '아트 트레일러'를 활용한 이동식 야외 공연을 개최한다. 문화예술교육콘텐츠 연구모임 '서로배우 연구활동'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대체해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 8억 여원 규모 신규사업 추진= 예술인·단체의 창작 활동과 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다양한 신규사업도 진행한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路)'는 지역 예술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올해 프린지페스티벌 지역단체 참여를 60%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열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 50명과 기업·기관(마을) 10개소를 매칭, 예술을 통한 기업·기관(마을)의 이슈 해결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예술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은 기초 공연예술분야 단체의 창작에 필요한 직접경비 및 예술단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광주 소재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선정한다.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은 기초 공연예술분야 민간소극장의 창작을 위한 운영비·경상비를 지원한다. '창작산실사업'과 '특성화극장운영사업' 세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 예술배너 사업 '300, 소리없는 아우성' = '광주 예술인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예술

인 참여 공공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광주 예술인 300명의 작품 이미지나 메시지를 가로등 모양의 배너로 제작해 구도심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활동 이력 1건 이상 예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8일까지 접수한다. 300명을 모집하며 작품접수는 문자언어로 이루어진 '한마디'와 시각 이미지인 '한 컷'으로 나뉜다. 전자는 한글 30자 이내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거나 개인의 극복담과 경험을 녹여낸 한마디면 되며 후자는 회화, 일러스트, 사진, 만화 등 시각예술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1개 작품당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다룬 영화 '낙화잔향' 광주 북구청·광산구청 홈페이지 만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낙화잔향'이 광주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개봉해 눈길을 끈다.

영화 제작사 ㈜무당발레필름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개봉을 늦추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영화 상영'을 기획했으며, 여기에는 광주 북구청·광산구청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화는 18일 전후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영은 서울 배우들이 출연했고 서화가 원장 이주림 화백,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판소리 스승인 강송대(전남도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잡가 예능 보유자), 오영목 음악감독, 후반 작업 ㈜엔팀 등이 참여했다.

영화는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한 '2019 광주브랜드 극영화

제작지원' 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출한 박기복 감독의 두 번째 5·18 소재 작품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뮤지컬 오디션 경연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여대생이 광주학살을 목격하고 경험한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연민지를 비롯해 이 지역 출신 김잔디, 홍지연, 박형일, 박영배, 박준철, 강다희, 지니 에터스(원장 박명진) 소속 배우들이 출연했고 서화가 원장 이주림 화백,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판소리 스승인 강송대(전남도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잡가 예능 보유자), 오영목 음악감독, 후반 작업 ㈜엔팀 등이 참여했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5·18을 주제로 한 영화 '낙화잔향'이 북구와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봉한다. 사진은 영화 촬영 중 한 장면.

앵글에 담긴 한국 대표 석조형 미술 고인돌·석불

담양 담빛예술창고 다음달 27일까지 사진가 박하선·윤길중 '시공혼적' 전

한반도 조상들의 시간과 공간의 흔적은 어떠했을까? 시공간에는 인간 삶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다. 그들은 자신들 삶과 역사, 문화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또, 그들의 영속성과 아름다움을 위해 돌을 선택했다.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가 박하선·윤길중 사진작가를 초청해 오는 6월 27일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

'시공혼적 時空混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하선은 '고인돌', 윤길중은 '석불'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사진전문지 포토닷(디렉터 박이찬)과 공동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약 80여 점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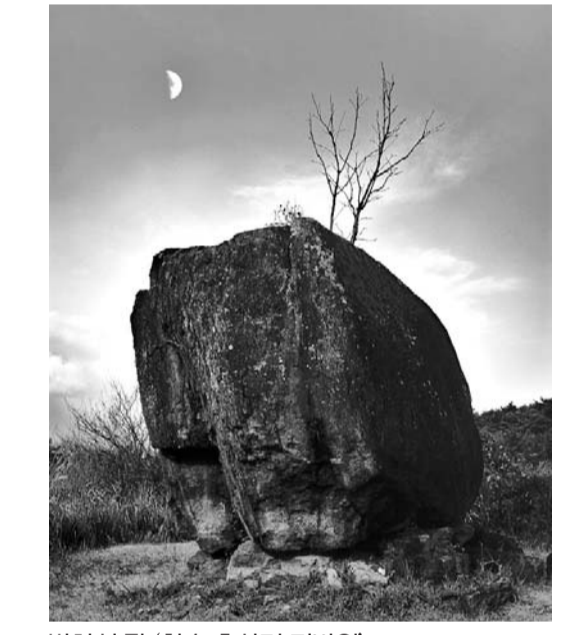
사진작가 박하선은 언제, 왜, 누가 초기에 만들었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고인돌에 관심을 갖고 20여 년 동안 국내의 곳곳을 누비며 기록해 왔다. 윤길중 작가는 국내 거의 모든 사찰을 찾아 불상과 큰 법당을 기록해 왔다. 두 사람의 앵글에 담긴 석불과 고인돌은 사료적 의미를 넘어선 작업으로 두 사진가의 시선을 통해 한국 대표적 석



윤길중 작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조형 미술의 백미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윤길중의 '망제동석불입상' (전북 정읍), 운천사마애여래좌상(광주시)과 박하선의 화순 효산리 괴바위, 담양 공산리 구마를 고인돌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담빛예술창고 문예카페에서는 이세현 작가의 '경계 : Boundary' 사진전이 열린다. 작가가 앵글에 담은 '경계'는 구체적인 어떤 '곳'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일상의 기록부터 더욱 구체화 된 본 작업의 소재는



박하선 작 '화순 효산리 괴바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의 또 다른 '흔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

14·21일 색모래 액자 만들기 등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오는 14일과 21일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재단 8층 여성전시관에서 시민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재단 내 여성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사)오월어머니집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기획전 '내 안의 그녀-오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14일에는 물품로 나만의 그림을 그린 뒤 색모래를 뿌려 작품을 완성하는 미술 체험 '색모래 그림 액자 만들기'가 열린다. 이어 21일에는 '노래하는 오르골 인형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각가 정진영·최재덕이 참여한다.

체험에 앞서 참여자들은 '내 안의 그녀' 전시 속 오월어머니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5·18민주화운동과 오월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오월어머니들이 제작한 색모래 그림 액자 모습.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는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향생계 장아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분위</p> <p>☎ 062)412-1961, 010-5828-1961</p>	<p>미 가 한 우 명 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p> <p>☎ 061)333-0505, 010-4390-3366</p>	<p>퀵 타 로 카 드</p> <p>지하철 금남로5구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공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p> <p>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함.</p> <p>☎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p> <p>☎ 062)526-5475, 010-8621-5959</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p> <p>☎ 061)333-2779, 010-3610-2779</p>	<p>무크 광주세정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p> <p>☎ 062)370-9258</p>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김 동 일 쉼 프</p> <p>동구 지호로42(지선2동사무소앞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p> <p>☎ 062)228-1975, 010-9622-8938</p>	<p>우 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p> <p>☎ 062)381-0066, 010-3085-0140</p>	<p>개성전통한방삼계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p> <p>☎ 062)383-3454, 010-2106-0424</p>	<p>한 성 꽃 화 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p> <p>☎ 061)334-3200, 010-3623-6921</p>
<p>광명천막기업</p> <p>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지바라천막, 차호루</p> <p>☎ 062)526-6153, 010-6646-7282</p>	<p>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p> <p>☎ 062)464-1425</p>	<p>연아불교용품</p> <p>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p> <p>☎ 061)334-0088</p>	<p>천상일월태주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p> <p>☎ 010-2617-3635</p>
<p>대성각 중화반점</p> <p>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p> <p>☎ 062)430-5342</p>	<p>초 대 화 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박 당 화 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p> <p>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